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 융복합 시대에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은희¹, 양이정^{2*}

¹광명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²하남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in Convergence Era

Eun-Hee Lee¹, Yi-Jung Yang^{2*}

¹Gwangmyeong Youth Foundation

²Hanam Youth Foundation

요 약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은 한국청소년패널 KCYPS 초1 패널 7차년도 데이터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1,9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영향력과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통제변수인 성별과 전체 성적만족도는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및 부정적 양육태도는 또래애착에 정적과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를 보여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천적 및 이론적 함의와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초기 청소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또래애착,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on the influences of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on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over 1,912 respondents who met the purpose of this study among Korean Youth Panel KCYPS 7th year data of 1st grade in elementary school. The research methods examined the influence of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 with difference of gender influenc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gender, the control variable, and overall grade satisfaction affected peer attachment. Second,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have confirmed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peer attachment. Third, moderating effect was confirmed as parenting attitudes by gender show the difference of impact on peer attach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o apply it to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basic data for the program development to improve youth peer relations.

Key Words : early adolescents, positive parental parenting attitude, negative parental parenting attitude, peer attachment, Convergence

1.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 양육자와의 인간관계를 바

탕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영·유아기에는 주 양육자인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되고, 아동기부터는 대상의 폭이 확장되어 또래집단과 더 많이 상

*Corresponding Author : Yi-Jung Yang(yi3413@hanmail.net)

Received March 07, 2018

Accepted April 20, 2018

Revised March 20, 2018

Published April 30, 2018

호작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모보다는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또래관계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적응과 대인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래는 비슷한 나이의 또래집단에서 개인이 맺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로 애정이나 정보 및 흥미 등을 그들만의 규칙과 질서로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애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이다[1-3]. 이처럼 형성된 아동의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한 또래애착은 심리·정서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또래관계 속에서 협동이나 경쟁, 친밀감 등을 형성하며[3],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 나간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익히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해결 등을 배워[4], 사회적 기술과 유능감을 발달시키게 한다.

물론 또래관계는 긍정적 지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갈등, 경쟁, 배신 등의 부정적 속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또래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인정을 느낄 때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소속감을 얻게 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5]. 하지만 또래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는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3]. 특히 아동기 후기는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과도기적시기로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또래집단의 관계가 더욱 밀착되어지게 된다[1-3]. 그러므로 또래에 대한 소속감의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또래관계가 아동의 발달과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가하게 된다[6,7].

또래관계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 스스로가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자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8], 또래 간의 의사소통과 신뢰감이 좋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9]. 반면 또래와의 갈등과 경쟁이 많을수록 자신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며[8], 또래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소외되는 경우 사회관계가 부정적으로 해석되어 타인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기청소년기의 또래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 부모와의 관

계, 부부갈등과 같은 부모요인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0]. 이렇게 부모 관련요인이 활발히 연구되어 오는 것은 생애 처음으로 맺는 사회관계인 부모가 아동의 전체적 인격 발달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며, 아동이 사회적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최초의 모델이기 때문이다[11].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자녀의 원만한 사회적 적응방법을 습득해 가며 사회적 성숙과 성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12]. 따라서 자녀의 사회적 적응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 자녀에게 어떠한 모델이 되는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에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달의 결과를 가져오지만[13],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을 경험한 아동은 부정적인 발달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 관계적 역할과 규칙을 학습하면서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배운다. 이것은 생애 전반의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에 청소년시기 뿐 아니라 그 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사회적 기술의 시초가 부모이다. 실제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 수용적, 애정적, 자율적, 민주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14,15],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와 간섭, 강압적, 적대적, 방임적인 부정적양육태도, 특히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동들은 발달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영향이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특히,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정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16]. 또한 부정적인 관계의 경험이 그대로 학습되어 타인과의 관계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또래집단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17]. 이는 비행이나 탈선을 유발 시킬 가능성이 높다[18]. 문제의 심각성을

더 확대해 생각해 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또래로부터 왕따나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원인 제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더 큰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관계형성의 실패로 올바른 관계형성이 학습되지 못하면 그 후에도 타인과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되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가 학령기 초기는 물론 생애전반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며, 수용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성을 잘 발달 시켜주지만 엄격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성의 결함을 초래한다고 하였다[19]. 또한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으로 인식하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적대, 거부, 비성취, 비합리적인 양육태도는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 지지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적, 학업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고[11], 교우관계를 비롯한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20]. 반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할 경우 또래관계가 부정적이게 되고 [21], 부모가 권위적이고 적대적이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22,23].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또래관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또래 관계형성의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부모양육태도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16,18]. 그리고 우리사회는 여전히 정서표현에 따라 남녀에 요구되는 성격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를 지니고 있다. 따라 부모의 양육방식에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24-2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의 양육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 1) 부모양육태도는 또래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은 또래애착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 3) 부모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또래애착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여 축적해 온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패널 자료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에 의하여 초1패널 7차년도(2016)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조사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에 부합되는 1,912명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983명(51.4%), 여학생이 929명(48.6%)이고 부친의 연령은 44세 이상~46세 이하 541명(28.3%)과 47세 이상~49세 이하 486명(25.4%)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모친의 연령은 41세 이상~43세 이하 605명(31.6%)과 44세 이상~46세 이하 550명(28.8%)이 절반을 또한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절반을 넘으며, 대다수 부모가 취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 총액의 경우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3,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이지만, '7,000만원 초과'인 경우도 16.7%를 차지하고 있다.

2.2 측정도구

2.2.1 부모양육태도

본 척도는 허묘연이 개발 부모 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 문항 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22].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는 하위요인을 긍정적양육태도와 부정적양육태도로 분류하였으며 긍정적양육태도 척도는 10문항으로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심', '내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심'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의 응답범주로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로 구성되었으며, 응답범주는 모두 역채점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뜻한다.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의

Cronbach's alpha값은 .892이다.

부정적양육태도 척도는 8문항이며 방임과 학대라는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씌',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을 심하게 혼내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의 응답 범주로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인 학대문항의 응답범주는 역채점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4미만인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음' 문항은 제외하고 분석했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뜻한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Cronbach's alpha값은 .749이다.

2.2.2 또래애착

본 척도는 Armsden & Greenberg가 제작한 애착척도(IPPA)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별로 3개 문항씩 총 9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였다[8,19]. 청소년의 또래애착 척도는 6문항으로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임',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함'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의 응답 범주로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모두 역채점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또래 간 애착이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또래애착의 Cronbach's alpha값은 .915이다.

2.2.3 조절변수

조절변수는 성별로 1점 '남학생', 2점 '여학생'이며, 이는 명목척도라 더미처리하여 1점 '남학생', 0점 '여학생'으로 변환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21.0을 활용하여 취업 여성 장애인의 일 만족도와 관련된 변수들 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실행하였다. 주요변수들에 대한 평균과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비메트릭스인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청소년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가정폭력경험 및 또래애착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변인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sd)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3.203(sd=.518),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1.632(sd=.476)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3.273(sd=.553)으로 4점 척도의 중앙값인 2.5점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1,912)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1.70	4.00	3.203	.518	-.250	-.489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1.00	3.29	1.632	.476	.818	.505
Peer attachment	1.83	4.00	3.273	.553	-.180	-.700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및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애착 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상관계수는 $r=.516(p<.01)$ 으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래애착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r=-.354(p<.01)$ 로 부적적인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된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상관계수는 $r=-.561(p<.01)$ 로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Peer attachmen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1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561**	1	
Peer attachment	.516**	-.354**	1

**p<.01,

3.2 연구모형 검증분석 결과

3.2.1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Table 3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3. Model estimate

Path	B	β	S.E.	t
Gender	-.121***	-.113	.021	-5.745
Parents life satisfaction	.004	.003	.023	.174
Academy satisfaction	.057***	.082	.014	4.162
Income	.005	.014	.006	.727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518***	.451	.027	18.851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135***	-.118	.030	-4.417
F	114.533			
R ²	.296			
Adjusted R ²	.264			
Durbin-watson	1.984			

*p<.05, **p<.01, ***p<.001

통계변수는 성별,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전체 성적만족도 및 가구 연소득이며, 이 중 성별은 명목변수라 분석을 위해 더미처리 하였다. 성별변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또래애착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beta = -.124, t = -6.270, p < .001$), 자신의 전체 성적에 만족할수록 또래애착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82, t = 4.162, p < .001$). 하지만 보호자 삶의 만족도와 가구 연소득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변수는 종속변수인 또래애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51, t = 18.851, p < .001$).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애정적 및 감독적으로 양육할수록 또래애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수는 종속변수인 또래애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8, t = -4.417, p < .001$). 즉,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할수록 또래관계에서 애착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및 부정적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29.6%로 나타났다.

3.2.2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남자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자신의 전체 성적만족도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59, p < .05, t = 2.153$). 독립변수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87, p < .001, t = 15.147$).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9, p < .01, t = -2.748$).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31.0%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 값이 0.1이상을 보여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또래애착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1, p < .001, t = 3.883$). 독립변수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79, p < .001, t = 10.218$).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68, p < .001, t = -4.222$). 또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Table 4. Analysis of Gender Adjustment Effects

Variable	Male				Female			
	B	Beta	t	Allowance	B	Beta	t	Allowance
Parents life satisfaction	.013	.011	.396	.930	-.003	-.003	-.100	.948
Academy satisfaction	.041*	.059	2.153	.937	.075***	.111	3.883	.963
Income	.008	.025	.898	.928	.001	.003	.103	.946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578***	.487	15.147	.685	.414***	.379	10.218	.568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113**	-.099	-2.748	.540	-.193***	-.168	-4.222	.492
F	73.140***				59.422***			
R ²	.310				.279			
Adjusted R ²	.306				.274			
Durbin-watson	2.066				1.976			

*p<.05, **p<.01, ***p<.001,

27.9%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 값이 0.1 이상을 보여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별의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별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또래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애정적 및 감독적으로 양육할수록 또래애착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은 또래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할수록 또래관계에서 애착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부모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또래애착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별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양육에 직접 개입해 교육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가족의 체계의 모든 환경, 즉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확보되는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에게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 결과로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또래관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체계적인 부모교육과 학교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상담이나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과 자녀양육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맞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한 예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지집단과 자조집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방법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창구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를 자유롭게 의논하고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 교육을 자녀가 있는 부모 대상이 아닌 그 이전 시기, 즉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화 하여 학대, 방임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학습하여 학대나 방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교육을 실시해야 하겠다. 또한 결혼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자녀양육의 기술을 교육하여 적기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에 따른 발달과업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현 시대는 부모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시대이다. 자녀의 양육을 가족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의 욕구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M. K. Chung.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the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the Peer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2] E. J. Lee. (2011). *Influence of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 on Happiness and Peer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3] K. L. Lee. (2007). *A Study on Family Functioning Perceived by Mothers with Hearing Impair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4] G. M. Lee., J. K. Koo., S. H. Kim & S. H. Lee. (2001).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Solitary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logy :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3(1), 147-162.
- [5] W. M. Bukowski & B. Hoza.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15-45). New York: Wiley.
- [6] D. A. Cohn.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1), 152-162.
DOI : 10.2307/1131055
- [7] M. Putallaz.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2), 324-340.
DOI : 110.2307/1130510
- [8] W. J. Oh.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Friendships and the Relationships of Friend Relationships and a Child's Sense of Self*. A Master's Thesis in Postgraduate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Seoul.
- [9] S. H. Chun. (2008). *The Influence of Leisure Activities and Peer Attachment by Teenagers on Adjustment to School Life*. A Master's Degree from University of Daegu, Daegu.
- [10] E. Y. Hwang, H. S. Do & J. H. Shin. (2008). The Quality of the Marital Conflicts,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of Children by Type of Bullying. *The National Council of Government Studies*, 26(5), 419-432.
- [11] X. Chen., H. Chang., Y. He & H. Liu. (2005). The Peer Group as a Context: Moderating Effects on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76(2), 417-434.
DOI : 10.1111/j.1467-8624.2005.00854.x
- [12] D. Y. Lee.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Attitude and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A Dissertation on the Master's Degr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Seoul.
- [13] A. C. Crouter & M. R. Head. (2002). Parental monitoring and knowledge of children. *Handbook of parenting*, 3, 461-483.
- [14] S. J. Ki. (2012).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toward Youth Care Actuation of Children's Medical Education : Focused on Policy Surposition. *Korea Computer Information Association*, 17(5), 127-136.
- [15] M. Joussemet., R. Koestner., N. Leke & R. Landry. (2005).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Autonomy Support to Children's Adjustment and Achievement in School. *Journal of Personality*, 73, 1215-1236.
DOI : 10.1111/j.1467-6494.2005.00347.x
- [16] I. K. Seo & Y. S. Lee. (2016). The Influence of the Adaptability of Adolescence on the Adaptation of School Life : The Transit Effect of Stres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4, 45-68.
- [17] A. P. Jackson., J. K. Choi & P. M. Bentler. (2009). Parenting Efficacy and the Early School Adjustment of Poor and Near-Poor and Near-Poor Black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30(10), 1339-1355.
DOI : 10.1177/0192513x09334603
- [18] Y. J. Kwon.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elinqu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9, 177-204.
DOI : 10.20993/jssw.39.8
- [19] E. Y. Ryue. (2011).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Pusa.
- [20] J. M. Chartrand. (1992). An Empirical Test of a Model of Nontraditional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93-202.
DOI : 10.1037//0022-0167.39.2.193
- [21] S. A. Lim. (2014).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he Democratic and Undemocratic Parenting Attitudes on Self-Regulating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School Adaptabi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Primary Education Study*, 27(2), 73-93.
- [22] S. J. Lee & K. J. Oh. (2012). The Influence of the Temperament of Children and Their Parenting on the Path to Development of Carelessness and Excess Activity-Adjustability Problems. *Journal of Korean Studies : Clinical, Psychological*, 31(4), 945-969.
- [23] E. M. Cummings., P. T. Davis. & K. S. Simpson. (1994). Marital Conflict, Gender, and Children's Appraisals and Coping Efficacy as Media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41-149.
DOI : 10.1037//0893-3200.8.2.141
- [24] H. S. Do & M. K. Cho.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Peer Experience and a Child's Sense of Self Esteem. *The Journal of Child Studies*, 19(2), 19-33.
- [24] E. H. Jang & D. G. Lee. (2014). The Influence of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Impact It has on Their Social Competence :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Expressivity as Mediators.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25(3), 5-38
DOI : 10.14816/sky.2014.25.3.5
- [25] M., Timmers., A. H. Fischer & A. S. R. Manstead.

(1998). Gender Differences in Motives for Regulating Emo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9), 974-986.

DOI : 10.1177/0146167298249005

[26] Diener, M. L., & Lucas, R. E. (2004). Adults' Desires for Children's Emotions Across 48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5), 525-547.

DOI : 10.1177/0022022104268387

이 은 희(Lee, Eun Hee)

[정회원]



▪ 2008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학과(교육학사)

▪ 2015년 2월 : 한세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상담
학 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광명시청소
년상담복지센터 학교상담사

▪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소년원교정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 E-Mail : silverm1225@hanmail.net

양 이 정(Yang, Yi Jung)

[정회원]



▪ 2005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인문학사)

▪ 2011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교육학사)

▪ 2015년 2월 : 한세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미술심리치료학과(상담학
석사)

▪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위기상담, 부모상담

▪ E-Mail : yi3413@hanmail.net